

'92년생 삼각편대' 월드컵 선봉 선다

벤투호 내일 튀르키예스탄과 카타르 월드컵 2차예선 4차전 해외파 선수 합류로 모처럼 완전체...최전방 배치 다득점 노려

벤투호의 '1992년생 유럽파 트리오' 손흥민(토트넘)-황의조(보르도)-이재성(홀슈타인 킬)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의 선봉으로 나선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5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튀르키예스탄과 월드컵 2차 예선 H조 4차전을 치른다.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를 거듭했고, 이런 와중에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일정이 꼬였다.

결국 아시아축구연맹(AFC)은 팀별로 북한과 치른 경기 결과를 모두 무효로 하고, 잔여 경기를 한국에서 치르기로 했다.

AFC의 결정에 따라 한국(승점 7·골득실+10)은 레바논(승점 7·골득실+4)과 나란히 2승 1무의 성적으로 동률이 됐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H조 1위로 올라섰다.

벤투호는 5일 튀르키예스탄과 4차전을 시작으로 9일 스리랑카, 13일 레바논과 차례로 격돌해 최종예선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국내 팬들의 관심은 벤투호의 '1992년생 동갑내기'로 유럽파 3총사인 손흥민-황의조-이재성에게 쏠린다.

이들 3인방을 모두 2020-2021시즌 소속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손흥민은 최고의 '기록 제조기'였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정규리그 17골 10도움, 유로파리그 3골 1도움, 유로파리그 예선 1골 2도움, 리그컵 1골, FA컵 4도움을 작성하며 총 22골 17도움을 기록했다.

시즌 22골과 시즌 17도움은 모두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기록이다.

여기에 손흥민은 정규리그 17골로 차범근 전 감독이 1985-1986시즌 레버쿠젠 소속으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작성한 한국 선수 단일 시즌 유럽리

그 최다골(17골) 타이 기록까지 세웠다.

벤투호에서 손흥민과 최전방에서 '칼떡궁합'을 펼치는 황의조의 활약도 뛰어났다.

황의조는 2020-2021시즌 프랑스 리그1에서 12골을 터트리며 유럽 무대 진출 두 시즌 만에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12골은 보르도 팀 내 최다 득점이다. 더불어 지난 시즌 득점(6골)의 2배였다.

이재성 역시 독일 2부 분데스리가 홀슈타인 킬에서 2선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으며 정규리그에서 5골 6도움의 '알짜 활약'을 펼쳤다. 시즌 전체로 따지면 8골 7도움이다.

킬과 계약이 끝난 이재성은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다음 등지로 생각하고 몰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재성은 '동갑내기 친구' 손흥민과 황의조에 대해 "서로에게 힘과 자극이 된다"라며 "손흥민과 황의조는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좋은 날이 더 올 것이다. 오랜만에 대표팀에서 만나 어떻게 경기를 치를지 이야기도 나누고 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벤투 감독은 튀르키예스탄 때 이들 3인방을 최



전방 공격진에 배치해 다득점을 노린다는 계획이었다.

대표팀은 지난 2019년 9월 튀르키예스탄과 원정에서 2-0으로 승리를 따낸 만큼 홈에서도 완승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즌을 모두 마무리한

해외파 선수들이 모두 합류해 오랜만에 '완전체'를 이룬 것도 벤투호에는 긍정적이다.

한국은 튀르키예스탄과 역대 상대 전적에서 3승 1패로 앞선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치러진 첫 대결에서 2-3으로 패했지만 이후 3연승을 거두며 압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악물고 뛰는 육상 꿈나무들 3일 오후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9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남중부 100m 준결승에서 선수들이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한정미 '금빛 질주'

KBS배 육상 400m 우승

광주시청 한정미(25·사진)가 제49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땀다.

한정미는 3일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 대회 여자일반부 400m에 출전, 58초06으로 예선을 통과했다. 결승에서는 56초34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1위에 올랐다. 2위는 오세라(김포시청·56초62), 3위는 김지은(전북개발공사·57초52)이 차지했다.

한정미는 주종목인 400m에서 시즌 첫 금메달을 획득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는 지난 4월 시즌 첫 대회였던 제25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400m를 뛰지 않고 릴레이에만 나서 2관왕에 올랐었다. 당시 한정미는 여자일반부 4×100m 계주에서 강다슬, 정혜림, 유지연과 호흡을 맞춰 1위를 했었다. 일반부 4×400m혼성계주에서도 장지용, 이준, 유지연과 함께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KBS배에서는 한정미가 주종목인 400m에 집중하면서 금메달로 시즌 서막을 열었다. 광주시청은 이번 대회에서는 릴레이 종목에 나서지 않았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한정미가 지난번 대회에서는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아 계주만 뛰었는데 이번에는 주종목인 400m에 나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면서 "비가 내린 탓에 트랙 상황이 좋지 않았



으나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오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고·대학·일반부의 트랙, 필드, 경보 등 141개 종목(남자 69종목, 여 69종목, 혼성 3종목)에 총 2500여명이 출전한다. 여자 100m 허들 간판인 광주시청 정혜림은 7일 경기에 나선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숨고르는 K리그1...재정비 숨가쁜 광주

월드컵 예선 등으로 휴식기 악몽의 5월 딛고 도약 준비

K리그2 뜨거운 선두싸움 계속

전남 내일 서울이랜드와 대결

이번 주말 K리그1은 숨 고르기에 들어가고 K리그2는 뜨거운 선두싸움을 이어간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K리그1이 휴식기에 돌입했다. 월드컵 2차 예선(6월 5일-13일)과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6월 22일-7월 11일) 일정이 전개되면서 7월 20-21일 12개 팀이 다시 격돌하기 전까지 K리그1은 휴식기를 맞는다.

단, 앞서 코로나19확진자 발생으로 미뤄졌던 경기들이 휴식기 중간 진행된다.

1무 5패 '악몽의 5월'을 보냈던 광주도 이번 주 경기 일정 없이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다.

광주는 오는 19일 오후 4시 30분 휴식기 중간 서울을 만난다. 서울의 확진자 발생으로 치르지 못했던 5월 8일 14라운드 경기를 미뤄서 치르게 된 것이다.

쉬어가는 K리그1과 달리 K리그2 그라운드에서는 뜨거운 선두싸움이 진행된다.

올 시즌 K리그에서는 1위 자리 주인이 5번 바뀌었다. 한 팀이 1위 자리를 수성한 평균 기간은 18.2일에 그쳤다.

치열한 1위 싸움의 중심에 전남드래곤즈도 있다.

전남은 지난 5월 17일 안산그리너스와의 12라운드 홈경기에서 2-0 승리하며 연승에 성공, 시즌 처음으로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에 앞서 가장 뜨거운 팀은 FC안양이었다.

안양은 5연승 행진을 펼치면서 1위까지 치고 올랐다.

현재 1위는 대전하나시티즌이다.

전남은 앞선 김천상무와의 1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무려 4차레나 골대를 때리는 불운을 겪으면서 1-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반면 대전은 서울이랜드를 1-0으로 제압하면서 연승에 성공, 승점 1점 차 1위로 올라섰다.

전남은 5일 오후 4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1위 탈환에 도전한다. 대전은 안방에서 승점 2점 차 3위인 안양을 만나 1위 수성에 나선다.

한편 전남은 이번 경기에서 '여성' 팬을 대상으로 티켓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일반석과 골드석에 한해 할인이 이뤄지며 예매 시 '여성 50% 할인'을 선택해 티켓을 구매하면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당구 PBA 새 시즌 8개 대회로 늘어

2021-2022시즌 14일 개막

프로당구 PBA가 새 시즌 더 많은 대회와 더 다양한 채널로 팬들을 찾아간다.

PBA가 3일 PBA-LPBA 투어 시즌 일정을 발표했다.

오는 14~21일 광주 블루원리조트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지난 시즌보다 2개 대회가 늘어난 총 8개 대회(정규 7회, 월드컵피어싱)가 열린다. 개막전 타이틀 스폰서는 PBA 팀리그에 참가 중인 '블루원엔젤스'를 운영하는 블루원리조트가 맡는다.

남자부 PBA는 전 경기를 세트제로 변경한다. 128강부터 64강까지는 3전 2선승제(15-15-15)로 치르며 32강부터는 기존대로 5전 3승제(15-15-15-15-11), 결승전은 7전 4승제(15-15-15-15-15-11)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대회 기간이 6일에서 8일로 늘어났다. 여자부 LPBA는 기존대로 32강까지는 서바이벌 방식을 유지하고, 16강부터 세트제에 돌입한다.

세계적인 강자 스룽 피아비(캄보디아·블루원리조트), 히다 오리에(일본·SK렌터카)의 LPBA 합류로 새 시즌 여자부 우승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2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왕: 더 라스트 챔퍼
3관	크루엘라
4관	크루엘라
5관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6관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9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2067 라이더스 오브 자스티스
7관 씨네캐슬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프로페서 앤 매드맨
8관 씨네캐슬	파이프라인, 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운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6. 26.(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뮤지컬 <캔터빌의 유령>
일시 : 2021.07.10.(토)-11.(일) 19:30,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7

즐거움
문화산책